

한·일 경제전쟁... 광주·전남 지역기업 지키기 나섰다

일본이 28일 끝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영향을 받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뿐 아니라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섬유, 화학, 기계, 자동차 등 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원자금 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 지역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제2차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에는 수출기업 363곳, 수입

업체 214곳이 있다.

광주시는 우선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기업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광주본부 세관관들과 현장 실사를 거쳐 맞춤형 대책을 지원키로 했다. 현장 실사를 거쳐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지원 ▲지방세 등 세금 유예 ▲수출입선 다변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광주경제자유진흥원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으로 구성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꾸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대책추진단 현장 실사 맞춤형 지원키로 전남도, 소재·부품 국산화 위한 테스크포스 운영

전남도는 일본을 상대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돌려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전남지역의 수입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일본에서 수입한 규모는 2.5%(9억달러) 수준이다. 일본산 수입품으로는 화학공업 제품이 52.3%로 가장 많다.

기업들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도내 기업은 452곳, 일본에 수출하

는 기업은 303곳으로 중복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650곳으로, 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대처방안·피해상황·지원(건의) 사항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여수·순천·광양 지역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가장 많은 화학·금속 분야 관련 업체가 몰려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금속·화학 등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 관련 연

구개발 과제와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을 마련중이다.

한편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제조·무역업체 2곳 중 1곳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 제조·무역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 계획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1%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매우 부정 4.1%, 부정 41.0%)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 가공(63.6%), 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기계 업종은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자동화설비용 PLC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이 많고,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대책으로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8.5%),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31.7%), '규제 특례조치 확대'(13.2%),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10.7%), '피해기업 납세 유예 지원'(5.9%) 등을 들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靑 “백색국가 제외 강행 강한 유감”

“일본, 한국을 적대국 취급 ... 한미일 공조 저해”

정외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중 정외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

은 불가능하다”고 막말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지만,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담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급을 거론하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는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 수변공원 코스모스 ... “가을이 왔어요”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수변공원에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피어나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지소미아 11월 종료전 한·일 협상해야”

“미국 안보이익에 직접 영향”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고 AFP통신 보도했다.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선택을 했으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미국이 이명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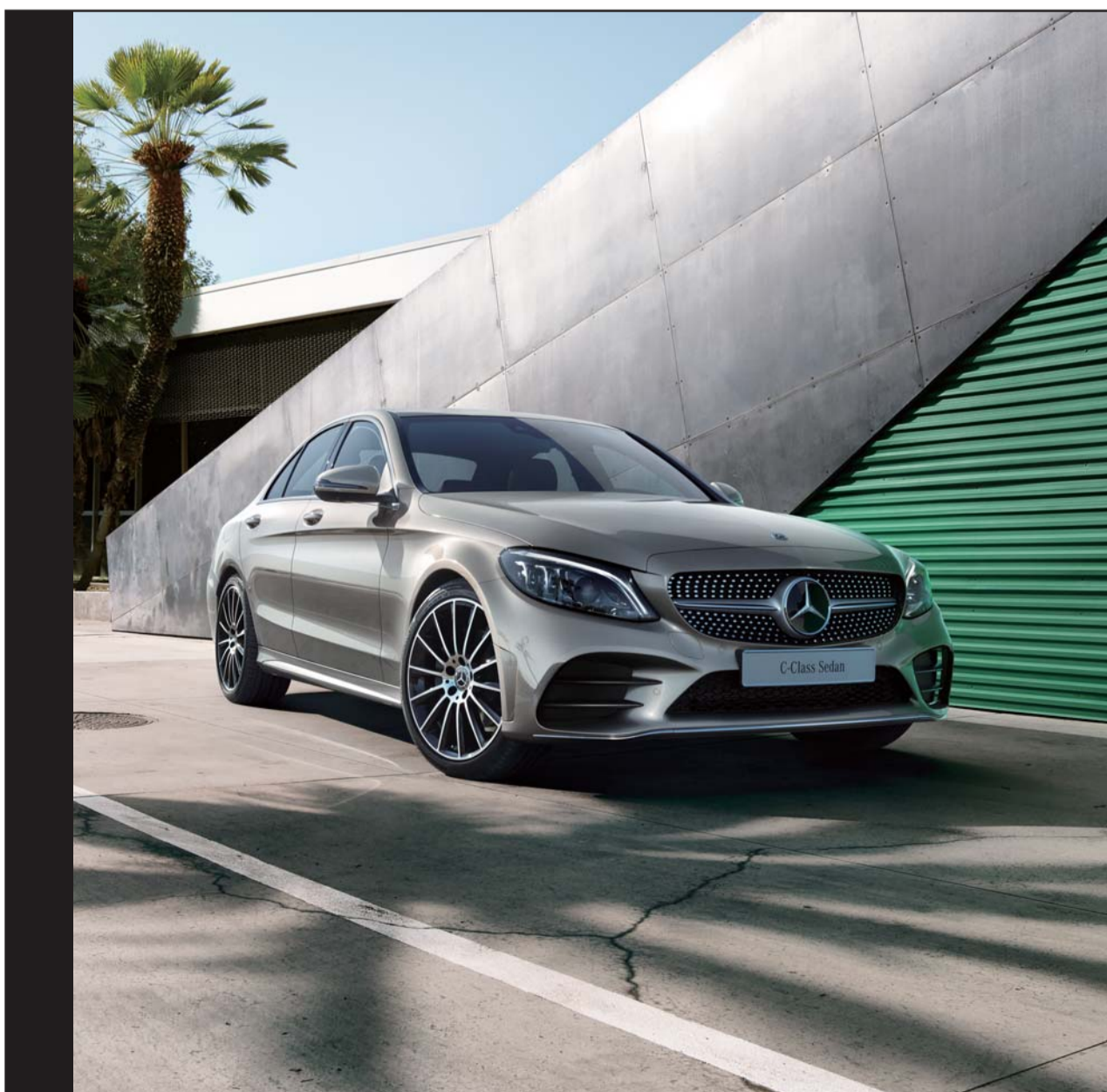
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거듭 밝힌 셈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명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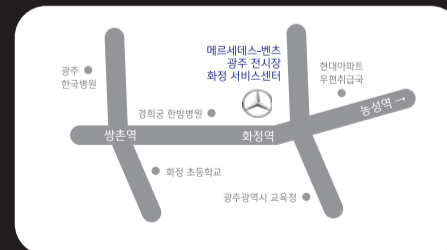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